

#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 GBC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데 짓기는 할까요?”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인허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벌이자 이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GBC 인허가를 위해 만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GBC 설계 변경을 두고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전협상에서 서울시는 최대 105층,

용적률 799%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공공기여 금액은 1조7491억원으로 정했다.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그룹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설비용과 활용성을 고려해 GBC를 기존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했다. 건물 높이와 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으로 서울시에 조속한 인허가를 요청했다. 사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액(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도 기존 약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여러 조건이 다른만큼 '혜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공기여를 조정하지 않고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조원의 한전 부지는 10년 동안 텅 비어 있다. 아직까지 공사도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통혼잡과 이동불편 등 피해는 고스란히 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GBC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까지 연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현대차그룹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기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윈윈한 합의를 찾아야 할 바이다. 만약 서울시가 '사전협상 취소'를, 현대차그룹은 '사업포기 후 토지 매각' 등을 결정해 과묵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불편은 시민의 몫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ysw@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옥스퍼드대와 인류 미래 그린다

영 옥스포드대 산하 미래연구센터 설립 미래연구센터장에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그룹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옥스포드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컨보케이션 하우스에서 '옥스포드-현대차그룹 미래연구센터(이하 미래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 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홍수 부사장, 옥스포드 대학 경영대 수미트라 두타 학장, 조나단 레이 놀즈 부학장,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 트루디 랭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옥스포드 대학은 자체 보유한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OSPA)을 통해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데 강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연구센터를 통해 미래 사회의 지정학적 변화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도출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혁신적이고 독



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왼쪽부터), 옥스포드 대학 경영대 수미트라 두타 학장, GSO본부장 김홍수 부사장이 8일(현지시간) 옥스포드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컨보케이션 하우스에서 열린 '옥스포드-현대차그룹 미래연구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창적인 연구로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정부 기관, 국제 기구,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도출하고 ▲미래연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리더십 워크숍을 시행해 확보한 인사이트를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미래연구센터장에는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와 세계경제포럼 전략 예측 프로그램과 OECD 사무총장실 미래

전략 고문을 거친 트루디 랭 교수가 위촉되었다.

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경영환경의 변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래연구센터가 조직 내에 미래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능력(Future Literacy)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미트라 두타 학장은 “옥스포드 대학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 기반 연구 역량으로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6월 5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오늘은 새 식구가 들어와 즐겁다 이득이 많다. 48년생 비단옷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 60년생 의견통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라. 72년생 최선을 다해라 또 다른 것을 즐 것이다. 84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소** 37년생 무릇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49년생 동분서주해 봐야 이익이 별로 없다. 61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이 된다. 73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85년생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을.

**호랑이** 38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 50년생 싸우지 말고 이혼 위기를 극복하라. 62년생 정치적인 인젠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7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라. 86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토끼** 39년생 언제나 진리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51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니다. 63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75년생 허랑가자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87년생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자 도움이 된다.

**말** 40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 52년생 로또를 사고 나서 되든지 안 되든지가. 64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도움. 76년생 좋은 향을 종이엔 쓴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 88년생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애 키우지 말도록.

**뱀** 41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53년생 칠혹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65년생 매력적인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77년생 진인사 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89년생 아직 팔팔한데 기죽지 말고 살자.

**닭** 42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5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66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78년생 오늘날만큼 백만 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 90년생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양** 43년생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을 먹어보자. 55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상책. 67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79년생 조심할수록 좋다 실수도 하지 않도록 점검. 91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원숭이** 44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56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68년생 오늘날만큼 서류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80년생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92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닭** 45년생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57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노동력이 따라 주지 않는다. 69년생 오늘은 웬지 지혜가 생기고 영업도 잘된다. 81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93년생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개** 46년생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준다. 58년생 보통 있는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말 것. 70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빌 언덕이 필요한 날. 82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기다려보자 결과가 있다. 94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라도 달래라.

**돼지** 47년생 오늘날만큼 받았으면 자신도 베풀어라. 59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71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83년생 가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짐. 95년생 기다릴지 버리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어렵다.



## 김상회의四季

새

필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충청도 김상회풍경소리 옆 마당으로는 자못 키 큰 화분 몇 개를 두고 있는데 나무라고 여겨서인지 아침이면 새 소리에 잠을 깬다. 필자가 충청도 종근당 뒷마당에 있는 작은 기와집 세 채가 있던 시절부터 거쳐왔고 쌀을 주곤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 아침이면 찾아와 지저귀니 식구 아닌 식구가 돼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느낀 것은 새들이 필자를 반긴다는 것이다. 그들도 나를 식구로 여기는 것일까? 어젯밤에 여러 원고며 밀린 정리를 하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오늘 아침 역시 어김없이 찾아와 왜 아직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느냐며 채근댄다.

새들에 대해 조예가 깊지는 못하지만 말로는 통하지 않아도 느낌으로는 서로를 아는 것이라. 새와 인간은 의외로 친밀하다. 비둘기는 편지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쓰기도 했다. 머리가 좋고 사납다고 여겨지는 매는 사냥의 친구이자 흥함을 쫓는 부적의 단골 상징이기도 하며 까마귀는 새 중에 장유유서가 뛰어나 효도의 상징으로 인정받는다. 그러하니 전해오는 이야기에 은혜를 아는 새, 까치와 선비에 관한 얘기도 다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까치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가 우리 선조들에게는 의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친근한 새들에 비해 전설과 신화에 나오는 봉황은 천자를 상징하는 새이다. 따라서 봉황의 문양은 귀족조차 쓸 수 없고 오로지 천자와 제후의 독점 문양이다. 매우 드물게 출현하여 커다란 사건의 징후를 나타내거나 군주의 위대함을 보인다고 하는 상서로운 새이니 왕으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몹시 인연이 지중해 보인다. 조두머리는 말을 마구 쓸 것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3
			8		9
		9			4
8				4	2
	6	4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2			5	
3					
2	9		3		1
1	7		2	6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